

## 택시·지하철 요금, 지자체 마음대로 못 올린다...

고물가 시대 지자체  
공공요금 못 올리게  
정부 직접 나서 압박

정부가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여한다. 앞으로 지자체들은 버스, 지하철, 수도 등 공공요금을 올릴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지방물가 안정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와 모든 지자체에서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그간 택시, 버스, 지하철, 상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었다. 대신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적게 올리는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요금 결정에 '간접' 관여해왔다. 지자체가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공공요금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도

록 중앙정부가 나서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도 지자체의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의 '요금관리관'을 중심으로 공공요금 결정 과정이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물가관리관'도 요금 결정의 주축이 된다. 행안부는 바가지 요금, 섞어 팔기 등을 단속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 축제는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특별히 관리한다. 질 높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당국은 매년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 배달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그 대상을 1만개 이상으로 지난해(7172개)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지정한다. 앞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물가 정보도 행안부가 공통된 조사 기준을 마련, 공개한다. 행안부는 시도별, 품목별 가격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재정 혜택을 준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 단체장 일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31일 오후 포항시 소재 TBN방송국에서 경북교육감 신년 인터뷰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31일 오후 경주 문화관 1918 광장에서 열리는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 참석한다.

### 달서구, 행복한 가정... 결혼친화도시 만든다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지원대상·금액·기한 확대

달서구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결혼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및 임신 준비에서 출생, 그리고 양육까지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서구 거주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종전 11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거저귀 지원은 월 9만원, 조제분유 지원은

월 11만원으로 확대됐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이상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는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존 생후 1년 4개월 이내에서 생후 2년 이내 진단아로 변경, 지원 기한이 늘었다. 결혼친화도시 달서구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생아용 카시트 무료 대여사업을 3월에 추진한다. 출산가정에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트라이크 무모차나 힘시트 제공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667-56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 경북 4개 대학 15개학과 모집정원 못채워

구미경운대 소프트웨어융합계열  
51명 모집 지원자 고작 8명 지원

올해정시원서접수결과모집정원을다채우지못한학과가나온대학이35곳으로집계됐고,34곳이지방대였다. 지원자가 한명도 없던 학과도 5개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3~6일 진행됐던 일반대 190개교 4889개 학과(모집단위)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30일 밝혔다. 신입생 미달학교대학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광주다. 6개교 36개 학과가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어 △충남 5개교(15개 학과) △전북 4개교(30개) △경북 4개교(15개) △충북 4개교(6개) △경남 3개교(14개) △전남 2개교(2개) △부산 2개교(15개) △대전 2개교(4개) △강원 2개교(3개) △경기 1개교(1개) 순이다. 서울·인천·세종·울산·대구·제주 지역 대학은 정시 원서접수에서 일단 정원을 모두 채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학과 총 163개 중 162개가 모두 지방에 있었다. 구미시 경운대 소프트웨어융합계열은 51명 모집에 지원자는 8명도 머물렀다. 학원 측이 지난해 전국 208개교 5243개 학과를 분석했을 때보다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정시에서는 59개교 381개 학과가 미달했지만 올해는 35개교 163개로, 지원자 없는 학과는 26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나해 지원자가 한명도 없던 학과는 폐지되거나 다른 학과에 통합, 학과별 개별 선발에서 학부 단위 통합선발로 전환하는 등 적극 구조조정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정시 원서접수 결과만을 놓고 따져 본 것으로 명단에 들지 않은 대학이라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일반대의 경우 수험생이 원서를 3장까지 쓸 수 있어 중복 합격이 가능, 수도권이나 상위 대학에 합격하면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황태용 기자

1

최고가 이야기하는

#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경북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에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구축한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 학교 통신망 구성에 시도별 1교씩 무선망 전용 1회선을 추가해 그 효용성을 분석한다.

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내년 3월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어 시범 사업 추진학교로 선정됐다.

# 대구시, 설계VE 가치 향상 재정절감 '톡톡'

(경제성 검토)

지난해 8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21건 설계경제성검토 실시 무려 361억 예산절감



대구시가 361억원의 공사비 절감 및 설계 가치향상에 기여했다.

총공사비 5670억원의 6.36%이다.

지난해 마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등 21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VE(경제성 검토)를 한 결과다.

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안한 271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제안을 설계에 반영했다.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 건설공사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민의 특화된 설계VE(경제성 검토) 노하우를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막고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설계VE(경제성 검토)는 설계 완료 전에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건설공사의 가치(가성

비)를 높이는 선진 건설관리 기법이다.

지난해 시행한 설계VE 결과 사례를 정리한 '2024 설계경제성검토(VE) 사례집'을 발간, 누리집(www.daegu.go.kr)에 공개했다.

설계VE 사례집에는 △조아~동명 광역도로 건설(1-2공구)의 암사토 최소화를 위해 노상 하단부터 암쌓기를 실시, 필터층 자재를 변경해 경제성 향상 △신천 우안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두산교 상류 유역을 분리, 우수관로 계획의 최적화 △섬서택지지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관로과소 크기가 작은 굴착전체교체를 굴착부분교체로 변경 등의 공사비 절감 등 VE 위원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노하우를 살린 각종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발주부서에서 유사 사업 추진 시 제안된 우수사례의 사전 검토로 설계의 가치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2년 설계VE(경제성검토)를 시작해 매년 검토 건수 및 검토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 2022년 24건(총공사비 1조4375억 원)을 검토했다.

지난해에는 21건(총공사비 5670억 원)을 검토하는 등 지난 10년간 대구시 공공사업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185건의 건설공사에서 3612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건설 공무원들이 VE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하며 대구시 VE 위상을 향상시키고 있다.

조여은 기자



## 군위군 사회복지안전망 그물망처럼 촘촘히 짬다

정부 지원 필요한 분 적극 보호 복지사각지대 예방 행정력모아

군위군이 사회복지안전망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짬다.

군은 지난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회의에서 수급자 7599가구 1만729명의 소득·재산 변동 등 수급자 관리의 공정·정확성 및 급여지연 적정성을 논의했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등 35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보장 결정했다.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4년 자활

지원계획, 자활기금 운용 등 5개 안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심의,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장애인 사용 엄두도 못내

박선하,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전기차충전시설 지원근거 마련



박선하(사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권 및 사용권을 보장,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 0.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탓이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현재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용은 커녕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상북도가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 촉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 새달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성용 기자

## 경북도 여의주 문 청룡과 함께 경제 발전 시동

도정 방향 민간투자 활성화 1시간 1호텔 프로젝트 추진 지역 활성화 펀드 가속도...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 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경북도는 지난해 연말 이철우 지사가 직접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올해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22개 전시군을 상대로 '1시간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

표로 삼는다.

발표된 과제 중에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순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 관광산업 관련 제안이 시선을 끌었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화 관련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 상반기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한다.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

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 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진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만 발생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도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연)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 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하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배~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민·관 협력 역할분담 현실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 영덕이 1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 감포읍 대변 유자망협회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감포읍 대변 유자망협회는 지난 2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성환 유자망협회의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

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7명의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부를 통해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대 감포읍장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대변 유자망협회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1월 말까지 모금을 지속할 예정이다.

## 경주 금리단길 볼·먹거리 특화골목...활력 찾아

### 중심상권 '관광객' 유입 늘면서 창업 붐 일어나기 기대 부풀어

경주시가 금리단길을 황리단길과 차별화된 상권 개발에 따른 점포 활성화 준비를 마쳤다. 시는 30일 중심상권 일대에서 골목길메니지먼트 및 스타점포 현판식을 가졌다. 행사에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22개 창업 점포주, 상인회 등 50명이 참

석, 경주 중심상권 금리단길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다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중심상권에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금리단길에도 창업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원, 금리단길을 볼·먹거리 등의 특화골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김미승 경주중심상권리태상사업추진단장의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현판전달식, 테이블키팅, 상품소개, 점포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골목길메니지먼트 사업은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 컨설팅과 환경개선비 등의 사업 지원금으로 12곳 점포당 3000만원의 직·간접 지원이 이뤄졌다. 참여한 골목식당은 △르주루제이(Le jour J, 프랑스 요리) △변주희 피자리감밥(분식) △에이프레임 익스프레스(고등어 샌드위치) △바실라의 초콜릿 이야기(제과) △경주 체리주(전통주 체험·판매) 등 5곳이다. 골목공방으로는 △

가족살림(가족만들기) △꽃길93(플라워 아트) △아로마수(기능성 화장품) △샘샘이지(나만의 기념품) △The Grave&Childhood 송주공방(목공예 도자기) △나무와 공방(목공예) △우드 캔버스(목공예) 등 7곳이다. 스타점포 발굴사업은 기존 점포의 상품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해 변화되는 고객중심의 점포로 거듭날 수 있게 10곳의 업체에게 환경개선, 직종교육 등의 명목으로 업체당 1000만원 상당의 직·간접 지원이 이뤄졌다.

스타점포에 참여한 업체로는 △스윗문(카페) △오륙돈(육류식당) △스키드안경원 △케이크한입시그니처카페(디저트) △몽상가(게스트하우스) △너나들이(소품샵) △고향밀면(밀면식당) △카페66도씨(디저트카페) △한우천국(육류식당) △경주다방(카페) 등이 있다. 시는 향후 금리단길에 신라의 빛광장, 금리단빛거리 등의 이색적인 거리조성과 맛거리, 관특화 등의 즐길거리를 발굴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 "우리 노인들도 어려운 이웃 도울 수 있다"...

### 기부천사된 경로당 어르신들 대한노인 경주시회 성금기탁

경주시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9300여 만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쾌적하면서 '기부천사로' 변신했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임직원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날 경주시를 찾아 희망나눔 성금 9335만 6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달 개최된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정기 이사회에서 뜻을 모은 후 모금 운동이 경로당으로 확산되면서 나온 결과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반기만 하는 노인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노인으로 변화"는 취지의 뜻을 정기 이사회에서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634곳의 경로당 어르신들은 물론 행복선생님들까지 동참하며 모금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경주시지회는 밝혔다. 이들 가운데 성건 부영마을 경로당 김은순 총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금

여를 모아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뿐 아니다. 용강동 김경환 분회장은 용돈을 아껴 모은 100만원을 기탁했다. 경주시지회 박승석 부회장은 직접 농사해 수확한 쌀 360kg을 쾌적, 산내 매골 김기환 어르신은 51만원을 기부했다. 구승회 경주시 노인회장은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모든 회원들은 물론 경주시 노인회를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경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함께 하며 행복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를 중심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큰 희망나눔 실천을 보여 주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회의 성금 기탁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부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학 경주시장을 포함한 시청 직원들이 공직자 핵심역량 강화교육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주시 지역 특성 맞는 창의적 시책사업 발굴

### 경주시, 공직자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주시가 정부 공모사업 대응과 국·도비 확보 전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29, 30일 이틀간 화랑마을에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가졌다.

김성학 경주 부시장은 "중앙부처 사업이 공모방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역량이 향상, 시의 현안과제 해결과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은 중앙·광역 정책 흐름 분석을 통한 공모사업 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형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빙, △용복합 사고와 부서 간 협업행정 △중양부처 정책방향과 주요 예산분석 △공모사업의 특징과 성공요인 △타 지역 공모사업 성공사례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정부 각 부처별 주요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수 공모사업 유형 분석을 통해 다양한 비법을 터득했다.

### 상하수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 현장 안전 문화 확산 안전관 건설현장구축

경주시가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 관계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29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구축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주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현장관계자의 협업도 당부했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및 향후 발주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감독별로 별도 시행한다. 아울러 덕동댐·정수장·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공중이용시설은 안전진단 후 보수보강을 한다. 장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로 안전의식을 더 높이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주시, 한부모가족과 아름다운 동행...

### 양육비 지원대상·금액 확대

경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

경북 청년 한부모(34~39세 이하) 양육비 등의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가 0~1세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주낙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 제공



경북

# 울진군, 온천관광 전국 최고 꿈꾼다...

## 포항 울진 영덕 울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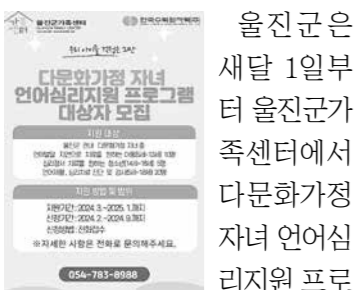


울진군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재활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 축산면발전협의회 취약계층에 라면 전달

영덕군 축산면발전협의회는 흑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30일 150만 원 상당의 라면 2000개를 배부한다. 김하섭 회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해를 관심을 가지며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설 명절을 전후해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 울진군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재활 등 대상자 모집



울진군은 새달 1일부터 울진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24년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다양한 원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세~13세 아동을 위한 언어재활치료와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진숙 울진군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펴나가는 울진군가족센터가 되겠다"고 전했다.



사랑의 쌀 전달식

### 포항, 경북향운노동조합 설 명절 맞이 나눔실천

경북향운노동조합은 30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465가구를 위한 백미 10kg 465포, 라면 465박스를 전달했다. 경북향운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매년 이웃돕기 위문품(누적 1억7천만 원 상당)을 전달해오고 있다.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꾸준한 이웃한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철성 경북향운노동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경북향운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직접 관내 465가구를 방문해 설맞이 선물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 온천·숲·해양과 결합된 치유벨트 구축해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 1000만시대 준비

울진군이 전국 최고의 온천도시로 관광 1000만 시대를 앞당긴다. 울진은 전통 온천관광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덕구온천과 백암온천은 온천메니아들에게 알려진 온천이다. 울진 온천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했던 관광객이 예년 수준을 회복해 감에 따라 온천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온천시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관광객 수가 주춤했다. 코로나19 감염자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오히려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는 최적의 여행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울진군은 덕구온천과 백암온천으로 대표되는 온천관광의 명소로서 '1000만 관광시대' 개막의 주춧돌을 온천산업이 놓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은 한국 유일의 자연온천수 온천으로 42.4°C의 온천수를 데우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경북도1호 보양온



천으로 지정됐다. 약알칼리성의 온천수는 신경통, 근육통, 피부질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 고즈넉한 자연환경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는 콘텐츠 제공으로 웰니스 관광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암온천은 1979년 경북도 온정면 온정리 일원이 국민관광지로 선정되며 개발이 본격화됐다. 천연알칼리성 라듐 성분을 함유한 국내 유일의 유향온천으로 무색무취하며 사람 몸에 적당한 온

도를 유지하고 있어 온천욕을 즐기기에 적당할 뿐만 아니라, 신경통, 만성관절염, 중풍, 신경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향온천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는 아토피 등 염증성 피부 환자들에게 더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치유 관광 명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백암온천지구는 2023년 12월 31일 백암온천 한화리조트 영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백암온천의 우수한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온천과 산림이 결합된 '백암 치유의 숲'과 동해안 최초 해양치유센터인 '울진해양치유센터'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온천과 숲, 해양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치유 관광 권역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병욱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온천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결합된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울진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 1000만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덕군, 미(美)한인회 손잡고 지역 경제 발전 이룬다

### 미(美)디트로이트한인회와 최초 화상회의 개최

(재)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분부는 지난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영덕군과 미(美)디트로이트한인회 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영덕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회의는 영덕군과 미주 한인회가 화상으로 만난 최초의 사례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군에서는 김광열 군수와 김동희 부군수, 주요 실·과장 및 팀장, 영덕군의회 김성철 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미(美)디트로이트 한인회에서는 권경희 한인회장(제40대), 김정섭 부회장 겸 사무총장 등 회장단 및 자문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시종 진지한 분위기로 첫 만남을 이어갔다. 화상회의는 양 기관에서 참석한 주요 내빈들의 인사로 시작해 김동희 부군수와 미(美)디트로이트 한인회 김정섭 부회장 겸 사무총장의 양 기관 소개, 김동성 본부장의 현재까지 교류 추진

경과 보고, 향후 추진 방향 및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열 군수는 인사말에서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 계신 한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가 영덕군과 미(美)디트로이트한인회가 다방면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영덕이 자랑스러운 호국·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성철 군의회 부의장은 "1965년 설립 이후 약 60년간 먼 타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권경희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화상회의가 향후 미(美)디트로이트한인회와 긴밀한 협력 추진의 기틀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미(美) 디트로이트 한인회의 발전과 더불어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미(美)디트로이트한인회 권경희 회장은 "첫 대면이지만 이렇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는



록 만반의 준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 미(美)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영덕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기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본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한 (재)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 김동성 본부장은 "영덕군과 미(美) 디트로이트 한인회 양 기관은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사인 역사·문화·유산·관광·보존 분야의 제휴 및 교류를 위해 본 회의를 개최했다"며 "오늘 화상회의가 상호 간의 우호적 협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포항 해동동 국민체육센터 착공

포항시는 '해동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착공식을 30일 개최했다. 해동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문체부 체육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2421㎡, 지상 3층 규모로 기초체력측정,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과 탁구,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용도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부 현상설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시설에 반영한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로서 생활체육시설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동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께 좋은 휴식처이자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구축에 더욱 애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울진군,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총력

### 시설개선 및 범죄예방시설 확대 설치



울진군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억4400만원(도비 200만원, 군비 10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5억 44백만원) 및 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휴지 및 편의용품 등(1억 40백만원) 비치 및 청소상태 수시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88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 운영 중이며, 7월까지 기 설치된 비상벨 점검 교체 및 미 설치 화장실에 비상벨을 추가 설치한다.

화장실 입구 CCTV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대면기 하단 가림막(안심스크린)도 설치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 및 시설물 보수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지정 개방화장실 2개소에 시설물 보수비로 총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개소에 휴지 등 편의용품을 매월(최소 10만원 ~ 최고 50만원) 지원했다. 군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요구사항을 반영해 예산 2억6000만원으로 울진남대천변, 부구리 및 봉산2리 해안면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간판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구주령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내 공중화장실 14개소에 비상벨과 CCTV 설치를 이달까지 완료했다. 순병욱 울진군수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설개선 및 범죄예방시설 확대 설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덕군, 전문가 직접 '무료 민원상담실' 운영

### 법무·건축·세무·지적 전문 분야 상담위원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덕군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도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 건축, 세무, 지적 4개 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법률과 건축, 지적 분야를 시작으로 관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관을 통해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법률 조언을 제공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1년부터는 세무 분야를 추가했다. 올해는 재무과와 마을 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국제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 세무 분야 인력풀을 더욱 보강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일정은 법률 상담의 경우 매월 첫

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건축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4시, 세무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5시며, 지적측량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민원상담 신청 방법은 법률·건축·세무 분야의 경우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하고, 지적측량은 평일 예약 없이 바로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054-730-6142)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전문 분야는 매우 어렵고 접근성이 낮아 불필요한 피해를 보시거나 의지할 데가 없으신 분들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 무료 민원상담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해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의 든든한 인생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 시장은 31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영천시악용자물산업회 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영천별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설명회에 참석한다.



한솔어린이집, 고사리 손길로 행복곰고에 이웃사랑 나눔

영천시 한솔어린이집은 30일 동부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직원과 원아 일동이 심시일반 모은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동부동 '함께모아 행복곰고'에 기탁했다. 사회복지법인 한솔어린이집은 1999년 개원해 원아들에게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교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최은하 기자



고령소방서, 설 맞이 장보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고령소방서는 지난 29일 성요셉제회원을 방문해 소방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설 명절을 맞아 노성환 도의원 하현주 소방행정지원단장 박상식의 응소방연합회 회장단과 함께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고령 대가야 전통시장에 방문해 화재 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 행사도 가졌다. 배영백 기자



청도소방서,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 캠페인

청도소방서는 지난 24일 코파 큰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청도소방서에서 추진 중이다. 우리 집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피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입주민들이 화재 시 더욱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다. 이번 기회에 화재 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영천시 청소년방과후, 수련관에서 새롭게 출발

학습지원, 체험활동, 자기개발 생활지원 등 초등 돌봄 서비스 지원

영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30일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9년 개소 후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지난 12월 독립된 교실과 다양한 활동시설이 갖춰진 청소년수련관으로 위치를 옮겨 더욱 넓고 다채로운 활동 공간을 갖추고 안전한 활동 환경이 마련돼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본 사업은 관내 거주 중인 초등 4~6학년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 생활지원, 독서 및 교과 학습 지도 등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교과 학습(영어·한국사·수학) △자기개발(손글씨, 한자급수, 창의미술) △전문체험활동(기타, 방송댄스, 생활체육) △생활지원(급식 및 건강·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영천시가 전국 최초로 경로당에 보급한 어울림 운동기구 '터링'을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

분기별 관내·외에서 진행되는 주말 체험활동을

### 청도군,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경북 최초 농어민수당카드 제작

청도군은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겠다고 3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짜까지 청도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총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에 충전 지급된다.

올해는 경북 최초로 농어민수당 카드를 제작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이 되는 청도사랑카드와 구분돼 농가 사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여은 기자

### 칠곡군, 찾아가는 반부패·청렴컨설팅

칠곡군은 31일까지 '찾아가는 반부패·청렴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반부패·청렴컨설팅'은 청렴 감사팀이 직접 부서별로 방문해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설명해 청렴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집을 위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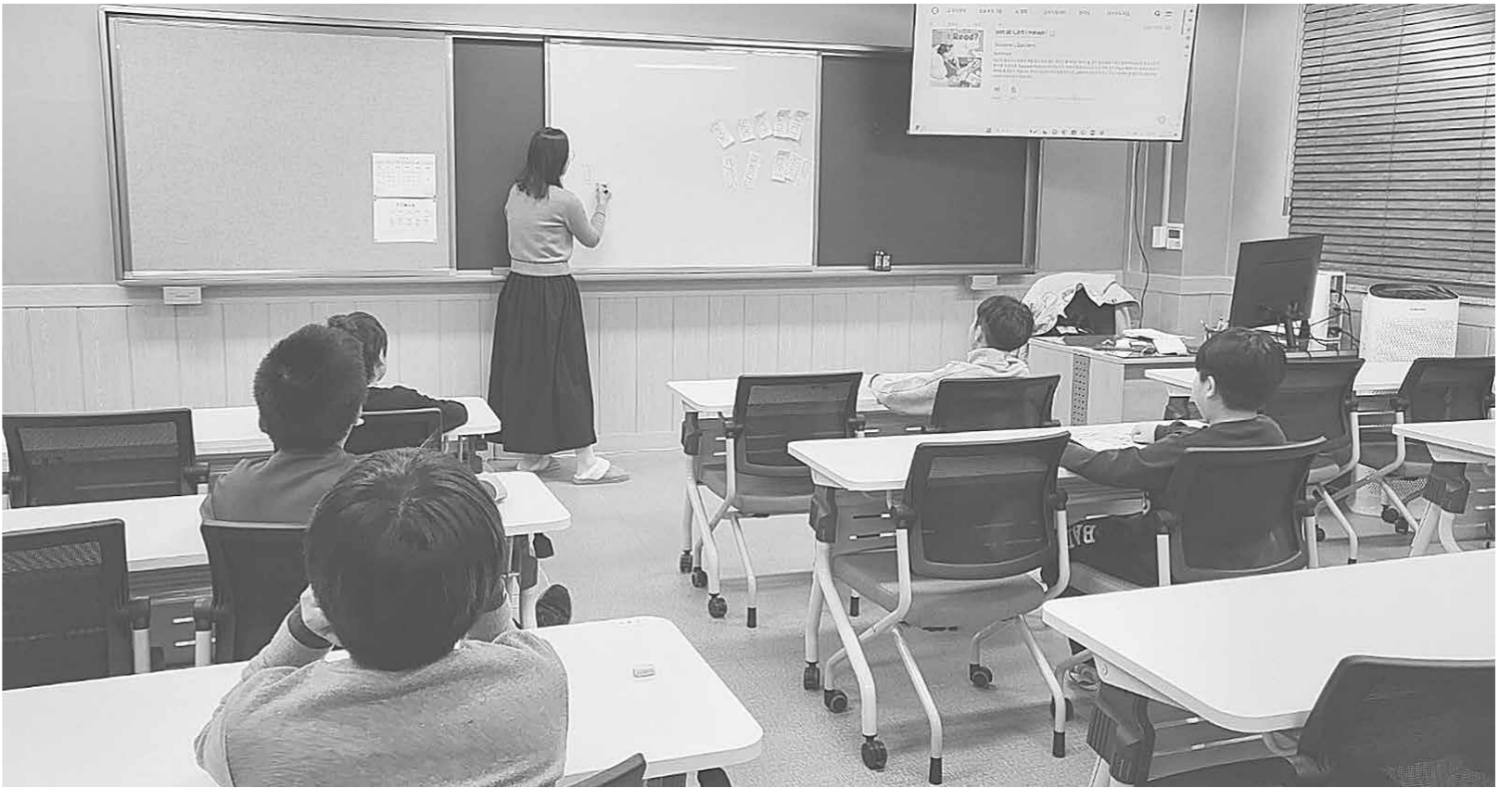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내용 안내 △2024년 청렴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안내 등이다. 조미경 기자

### 청도군, 경북도개발공과 MOU 매입임대주택 50호 건립 추진

청도군은 지난 29일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경북도개발공사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 약정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도군 일원에 50호 내외의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여은 기자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및 역사·문화를 익히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전으로 마련된 청소년문화의집의 유휴공간은 체육활동장,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하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은자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과 다양한 지원, 촘촘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는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재배치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내 화장실, 댄스연습실,

승강기 등 안전사항의 지속적인 개보수로 이용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육성 및 복지향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자체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생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은하 기자

## 성주군보건소, 24시간 비상진료체계 대응

### 성주군민 의료공백 해소

성주군보건소는 야간 진료실을 운영해 군민들에게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성주군 유일 응급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18일 응급 의료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해 응급실 운영을 종료했다.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 수요조사를 했으나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성주군민의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성주군은 생활권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성주군민을 위한 비상 진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중보건과와 사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새달 1일부터 성주군보건소

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야간 진료실을 운영해 군민들에게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4시간 진료체계 운영을 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9명이 순환해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보건소 직원도 재택 당직에서 일직, 숙직 당직 근무로 변경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1월 26일 성주소방서와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 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은 물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 권보장을 위해 119구급대와 긴밀하게 협조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24시간 야간 진료실을 운영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 경산시, 6·25 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

### 고(故) 김만이 일병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경산시는 지난 29일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故) 김만이 일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고(故) 김만이 일병은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1951년 강원 양구지구 전투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 1954년 9월 30일 훈장 서훈이 결정됐으나 전쟁의 여파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전달되지 못했다.

이날 훈장을 대신 전달받은 자녀 김영태 씨는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전자의 후손으로 오늘의 영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했다.

##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주의사항 안내

영천시는 3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방법, 사중발급인정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임금 지급 등 고

용주·근로자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이 물리는 시기 일정 기간(90일 또는 5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영천시는 지난해 124명을 초청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51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가주는 "농가에서는 일손부

족이 가장 큰 걱정인데, 설명회를 통해 계절근로제도를 통한 인력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입 시 주의사항이나, 서류 준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향후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적극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도입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과 기존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 고령,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고령군은 새해 농업인 교육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행한다.

기간은 지난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7회에 걸

쳐 950명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 여건과 수요를 토대로 마늘, 양파, 딸기, 버, 미생물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및 농업 신기술 소개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편성됐다.

29일 대가야읍 농업산지유통센터에서 권영석 강사의 "마늘 양파 고품질 생산을 위한 월동 후

재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시작으로,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최문환 강사의 "딸기 재배 및 무병묘 생산기술" 교육, 2월 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김미숙 농촌지도사의 "고품질 버섯재배", 박운석 강사의 "친환경 미생물 농법" 교육의 4회의 교육을 면사무소, 농협 등지에서 실시한다. 배영백 기자

경북

# 구미시, 이차전지 거점센터 구축... 양극재 산업 선도

### 이차전지 소재분야 공동 연구개발, 기업기술 검증, 인력양성 등 협력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LG-HY BCM, ISTMC(구미전자정보기술원)와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시장, 김영식 국회의원,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김우성 (주)LG-HY BCM 대표, 공창모 ISTMC(구)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 사업과 산업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 지원 인프라 활성화, 국가 R&D 사업, 기업협의체를 통한 사업 홍보, 기술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시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주관 수행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281억 원(국비 121, 지방비 160)을 투입해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에 이차전지 양극소재 산업육성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분석·평가 장비 등을 통해 제품 검증과 시제품 생산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4년 이차전지 양극재 본격 양산에 돌입한 (주)LG-HY BCM, 이차전지 양극재 재활용 기업인 ISTMC(구) 등 24개의 이차전지 기업과 대학, 혁신기관으로 이루어진 '구미 이차전지 기업협력 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해 비즈니스를 연계하고, 분석 장비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컨설팅 등 관내 이차전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2022년, 202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역산업의 특성과 연계된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첨단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예산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24년은 구미시 이차전

지 혁신 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국책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온 결과 앤커기업 유치,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며, "산·학·연이 연계된 협력 네트워크 기반 밸류체인을 형성해 이차전지 산업이 반도체, 방위산업, 로봇산업과 함께 구미산업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 전 김천늘푸른학교장, 청소년문화의집 도서 기부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전(前) 김천늘푸른학교장 강국원으로 부터 지난 26일 청소년 교양 도서 252권을 전달받았다.

이번 도서 기부는 평소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책을 읽으며 여가를 즐기고 건전한 문화 형성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게 됐다.

강국원 전(前) 김천늘푸른학교장은 "요즘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매체의 증가로 책을 읽는 청소년들이 많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소년들이 독서하며 책을 통해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며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부된 도서는 2022년도에 문당길 142(삼락동)에 이전, 건립돼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로 매년 이용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1층 열린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 의성, 저소득층 복지 집중 발굴 조사 실시

의성군은 2024년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선정기준 적합 예상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3월까지 저소득층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는 생계급여(30%→32%), 주거급여(47%→48%)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고, 의료급여는 중증장애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의성군은 신청주의 한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가능 가구를 먼저 찾아가서 안내하는 선제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발굴조사 대상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583가구와 중증장애인 790가구다.

먼저 행복이음 기준자료를 재확인해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업하여 대상자별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생활실태 조사와 복지급여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대 148가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일과 휴식' 동시에 원하면 김천으로 오세요

### 2024 위케이션 in 김천 시행

김천시는 최근 관광트렌드를 반영해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기획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위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합쳐 만든 말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와 여행방식을 적용해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2024 위케이션 in 김천'은 개인사업자, 기업과 기관 등 관외의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개 권역별(△직지권역, △부항권역, △증산권역) 거점 숙박시설과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해 김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참여 혜택으로는 숙박비 최대 50% 지원, 부속시설(공유오피스) 무료 이용, 주요 관광지 할인권 등이 제공된다.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월킵키트 또는 관광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박노송 관광진흥과장은 "위케이션은 좁은 사무

실 공간을 벗어나 양방향 소통을 원하는 조직이나 일과 휴식이 동시에 필요한 MZ세대에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라고 말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김천에서 『일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420-6714)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 문경시,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온라인(모바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문경시는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새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 신청은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

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가 이용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농업·임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 최대 20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개시

상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장비 교체 등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 간판 교체, 집가비품 구입), 안전 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 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

50% 이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관내 약 650명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 문경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할인 대잔치

### 2월 14일까지 76종, 6%~22% 할인



문경시는 활기찬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할인행사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프리미엄 상품부터 가성비 높은 실속형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온라인쇼핑몰 '문경사랑새재정터'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농특산물직판장 등

오프라인 매장 3개소에서 총 76종의 농특산물을 기존 판매가격보다 6%~22% 할인된 가격으로 동시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추석보다 메리골드(꽃차) 등 3종 품목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특히 문경시 농특산물 중 인기상품인 송화고 버섯, 꿀, 식초, 오미자, 약돌 염소, 프리미엄 와인 등을 새롭게 준비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문경시는 할인 품목 외에도 온라인쇼핑몰에 약 200여 종의 상품과 오프라인 매장에는 약 500여 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였다.

또한 2023년 약 42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 대비 12% 성장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김동수 기자

## 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

간 단속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새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회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

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반드시 천년고도 경주에!!

꿈나무야생

#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50만원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참가규모 88팀(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월 20일 (입금자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행사장소 : 경주더케어 호텔 2층 거문고실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탤런트 이영범



가수 소명



탤런트 최용준



가수 백봉기



가수 신비



가수 박규리

대구광역시일보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우승 준비이런 남성 풀세트
- 여자우승 준비이런 여성 풀세트
- 남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시상내역

- 여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남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니어 준비이런퍼터
- 여자 니어 준비이런퍼터